

• 누가복음 4:16-19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이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처절한 심판과 멸망의 한복판에 임했던 희망의 메시지(사 61:1-2)가 암울한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마 1:21)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로 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윤리와 도덕, 사람, 성공과 물질, 감정, 지식과 정보, 내가 만든 규칙들, 쾌락, 권력, 거짓 평화, 참소, 불법적 굴레들, 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 포로 됨의 근본은 결국 죄와 욕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사망과 억압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비진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비진리로 인해 억압되고 노예된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요 8:32).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렐 17:9).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사용해야 할 지정의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롬 5:1). 죄의 종이었던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롬 8:15),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나는 예수님 덕분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 ❶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 ❷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